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.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하나은행

Hana Market Weekly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자금시장영업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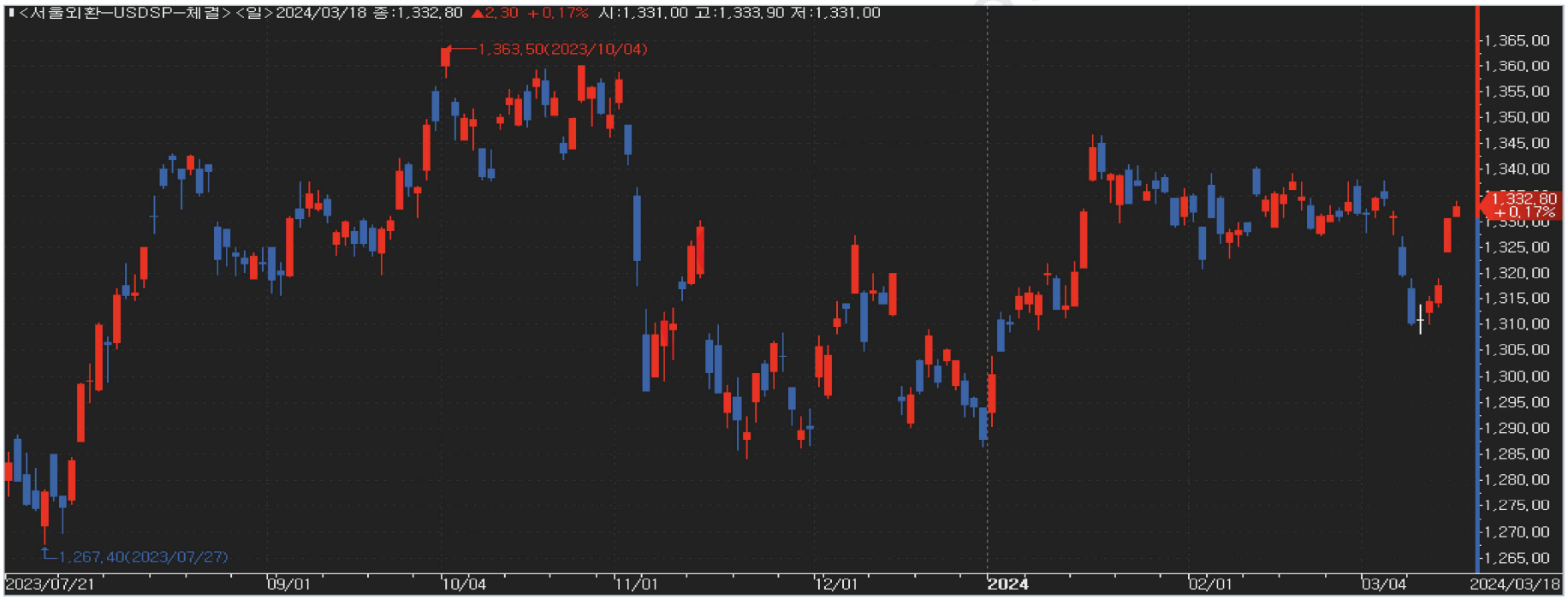
2024. 3. 18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장*정 / 0118208** / 2024-03-19 08:54:14

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.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주간 달러/원 동향(3/11~3/15)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미국 실업률 증가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지속됨에 따라 달러 약세와 역외 매도세 유입 영향 속 환율은 1310원대로 하락 출발. 이어 미국 2월 CPI 발표 전 관망세 나타나며 방향성 제한되는 가운데 강보합
- 중반, 미국 CPI 반등에 따른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중국 컨트리가든의 채권 이자 지급 실패로 인한 위안화 약세 등을 반영하며 상승세 지속
- 후반, 미국 물가 및 고용 관련 지표 발표 대기 속 경계감 강화되며 추가 상승. 이어 주 후반, 예상치 상회한 미국 PPI와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 등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 조정에 상승 후 1330.5원에서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317.0	1330.5	1308.0	1330.5	+13.5

달러/원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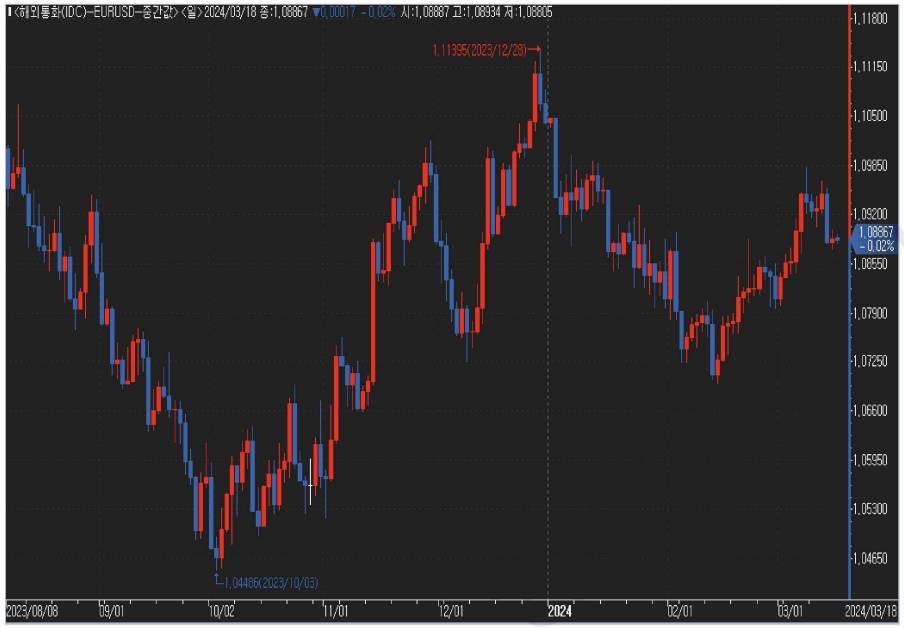
- 미국 주요 물가 지표들의 감소세가 더딘 흐름을 보임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계감 지속과 위험선호 위축 등이 달러 강세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며 환율 하단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- 여기에 BOJ 통화정책과 FOMC를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위험회피 심리 유입 가능성 등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- 반면, 최근 1,330원대에서의 수출 달러 매도 강화 및 높은 환율 수준에 대한 외환당국의 경계심리 강화 등이 상단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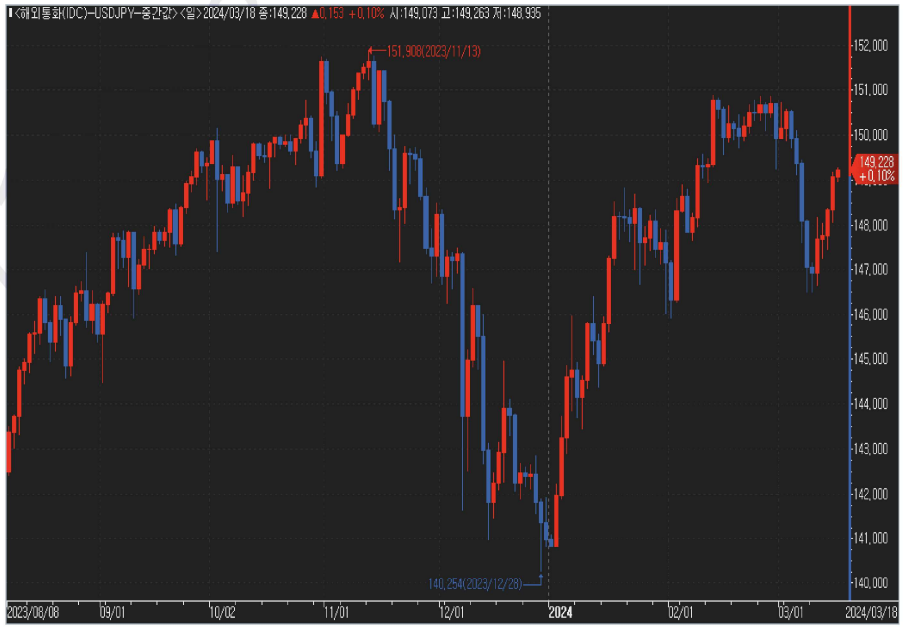
예상거래범위
1,320원 ~ 1,340원

장*정 / 0118208** / 2024-03-19 08:54:14

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.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엔•유로화 동향 (3/11~3/15)

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ECB의 6월 금리인하 가능성과 연준 대비 큰 폭 인하 예상 속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 출발. 이어 미국 CPI가 예상치 상회했음에도 연준 피벗 기대 지속에 따른 달러 약세에 상대적 강세 시현
- 중반, 유로존 1월 산업생산 부진에도 ECB 관계자가 선제적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영향으로 강세
- 후반, 미국 PPI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자 연준 금리인하 시기 및 속도 관련 기대 조정에 따른 달러 강세에 약세 전환. 이어 주 후반, 유럽과 미국 간 물가 둔화 속도 차이에도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 추가 약세 제한되며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0936	1.0964	1.0873	1.0883	-0.0053

엔화 동향

- 주초, 시장은 BOJ의 금융완화정책 전환 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엔화는 강세 출발. 이어 스즈키 일본 재무상의 디플레이션 종식 선언은 이르다는 언급으로 정책 전환 기대의 일부 되돌림 나타나며 약세 전환
- 중반, 일본 대기업의 임금인상 결정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BOJ 완화 정책 수정 기대가 상당부분 선반영되었다는 인식에 약보합
- 후반, 예상보다 높은 미국 2월 PPI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 조정에 달러 강세 나타나며 큰 폭의 약세 시현. 주 후반, 일본 최대 노조 단체 렌고의 평균 임금 인상률 예비치가 5%대를 기록하며 BOJ 정책 전환 기대가 지속되었음에도 미 국채 수익률 상승에 약세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47.1	149.2	146.5	149.1	+2.0

장*정 / 0118208** / 2024-03-19 08:54:14

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.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.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3/11~3/15)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전월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돈 결과에도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다소 도비시하게 해석되었으나, 최근 국고채 금리의 낙폭 과대 인식 등으로 약보합권 흐름으로 출발. 이어 미 국채금리가 입찰 결과에서 강한 수요 확인에도 2월 CPI를 앞두고 경계감이 강해진 가운데 BOJ 출구 전략 모색 발언 등에 따라 소폭 상승 전환
- 중반 들어, 미 2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탄탄한 대기 매수 수요 등으로 하락 전환 흐름 시현
- 후반 들어, 미 경기지표(소매판매, PPI) 발표에 대한 경계감 속 외국인 투자자 국채선물 매도 강화로 재차 상승 전환 후, 주 후반 상기 미 지표들이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임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을 반영 상승 흐름 이어지며 마감

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뉴욕 금융시장의 반도체 지수 급락과 AI 관련 업종 큰 폭 하락 등으로 하락 출발. 이어 미국 2월 CPI 발표 등을 앞두고 경계감이 강화되는 양상이었으나, 대내적으로 이차전지 업종 등의 강세가 수반되며 상승 전환
- 중반 들어, 주총 시즌을 앞두고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금융섹터 강세와 반도체 업종 등이 강세를 지속한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확대 속에 상승 추세 지속된 양상
- 후반 들어, 금융당국의 '스튜어드십 코드'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 등이 매수심리를 자극한 가운데 저PBR주 강세 속 연기금의 2년2개월래 최대 순매수 등으로 1년 11개월 만에 2700선 돌파. 이어 주 후반 미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.6%로 상승하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후퇴한 영향 등으로 코스피의 하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 2660선으로 하락하며 마감

장*정 / 0118208** / 2024-03-19 08:54:14